

경제위기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

- 주요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onsumption patterns for high-income households -Six Major Expenditure Categories-

배미경* · 박광희

소비자정보전공 경제통상대학 계명대학교 · 패션정보기획전공 패션대학 계명대학교

MiKyeong Bae · Kwang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College of Economics & International Commerce,
Kei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Merchandising, College of Fashion,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onsumption patterns of high-income households and analyzed the ratio of major 6 expenditure categories including food at home, food away from home, education, clothing, entertainment, and housing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We employed data from two different years (1997 and 1998) so that we could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economy depression on the patterns and items ratio of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the Daewoo Panel data were used. Also, data analysis was done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high-income households' consumption patter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ood away from home, among 6 consumption items, seemed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epression, but still high-income households seemed not to lessen education expense.

We included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ge, income, job, gender, debts and the likes. It was found that the age of reference person affected the amount of expenses for food, clothing, and entertainment.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d different consumption catego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marketing strategies of fashion industries

Key Words : high-income households, consumption pattern, marketing strategies, fashion industry, household expenditure.

I. 서론

지난 20여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유소득의 감소와 변화에 대한 욕구나 관심의 저하로 지출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소비지출 중에서 내구재 특히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1999, 1,

26). 또한 1998년 2/4분기의 외식비, 가구가사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의 감소율은 매우 커서 전년대비 20-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감소와 더불어 IMF관리체제이후 나타난 소비시장의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시장의 양극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서 저가를 추구하는 실리적인 소비자시장과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시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 인구의 1.6%가 전체 총소비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인구의 8.7%가 총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중·대형 승용차, 골프채, 카펫 등 고

* Corresponding author: MiKyeong Bae
Tel: (053) 580-5864, H.P: 016-9750-5864
E-mail: baemik@kmu.ac.kr

가 외제품 선호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경남세관에 따르면 2001년 3월까지 승용차는 1,363만 달러가 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1,037,000)에 비해 13배 이상 폭증하였으며, 모피의류의 경우 124만 달러로 34.3% 증가하였다(donga.com, 2001, 4, 13). 또한 상당수의 패션업체 및 백화점은 브랜드의 고급화 또는 명품 쇼핑관을 개점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급제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와는 달리 소비환경 전반에서 소비의 고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제품 시장의 규모가 늘고 있다(이상민, 최순화, 2001).

이제까지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은 계속해서 매출 증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20:80의 법칙과 같이 사회구성원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비패턴의 연구는 이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소득층의 소비성향과 각 소비항목의 평균지출비와 구성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장의 양극화 가운데 고가의 제품을 추구하고 구매하는 고소득층의 소비지출과 소비패턴은 경기변동 또는 경기침체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97년과 98년의 소비지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소비지출 패턴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상품기획 및 판매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지출 및 소비패턴

소비패턴은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경제학에서는 넓은 의미의 소비범주에 속하는 지출항목들간의 관계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반면, 경영학에서는 동일 소비범주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범주 유형별 차이가 소비항목별 지출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비패턴은 가계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

경 속에서 그들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방식의 표현이다. 가계의 소비는 다른 소비항목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소비 항목들로 구성되고 그러한 소비항목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정영숙, 2000). 소비패턴의 구조와 특성은 사회경제적 변동과 더불어 변화되어 왔다. 소득이 상승됨에 따라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국제화 시대에 외국과 무한경쟁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외국어 교육비에 대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질소득 수준을 비롯하여 고령화, 핵가족화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환경, 기술,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정영숙, 2000).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기본적 기준은 수익성과 투자수익이다. 이러한 기준은 지속적인 시장확장과 연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경제적인 상품이나 그들이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상품보다는 최대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의 공급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의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커다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소비패턴을 창출한다(강이주, 1998). 1996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동향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식료품비 등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층은 교통통신비, 교육교양 오락비 가구집기 사용용품 구입 및 신발 구입비 등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미경, 1998).

IMF 관리체제이후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때 1997년 2/4분기 -0.6%, 1988년 1/4분기 -8.8%, 1988년 2/4분기 -13.2%로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소비지출 중에서 외식비(-28.0%), 가구가사비(-28.6%), 교양오락비(-29.4%), 피복신발비(-30.0%)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비목의 소비지출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혜경, 이은영, 1999). 1998년의 경우 피복신발비와 교양오락비가 각각 26.4%, 22.6% 감소해 소비지출 비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는 197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전 비목에서 소비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각종 통신비의 증가로 교통통신비와 교양오락비가 각각 25.3%, 22.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교양오락비 및 유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광열수도비가 각 18.2%,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은정, 2000, 5).

지혜경과 이은영(1999)의 연구에 따르면 피복비지출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경기호황보다는 경기불

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비지출은 의식비, 가구 가사비, 교양오락비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항목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의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비지출의 변동 정도는 사회전체의 경기변동 정도보다 훨씬 커서 경기가 1만큼 변동할 때 피복비지출은 2.6배 정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복지출은 경기변동에 순응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복비지출 패턴은 경기상승국면에서는 느리고 완만하나 하강국면에서는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지출(소비패턴)의 차이

IMF 관리체제이후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중산층의 쇠퇴와 계층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고실업, 고금리, 실질 임금의 삭감,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소비의 양극화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과 실질임금삭감, 장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 확산 등으로 일반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되어 과시적 소비가 줄어들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실용성을 중시하게 된 반면, 일부 부유층은 소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93-96년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를 조사한 대우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수준 상위20%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월평균 소득은 1993년에서 1996년 사이 57.8% (약269만원에서 약425만원)의 증가를 보였으나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47.5%(약27만원에서 약 40만원)가 증가하는데 그쳐 소득수준 상위 20%계층이 하위 20%계층보다 1996년 월평균 소득이 10.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 1996년 소득수준 상위 20%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245만원으로 하위20%가 지출한 약48만원보다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위 20%계층의 소비규모는 전년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소득증가율 16.1%보다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계층은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를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1997, 5, 27). 또한 1999년 상반기 중 소득계층별 가계수지변화를 보면 상위 20%계층의 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위 20%계층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지만 소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1999, 8, 25).

백화점들이 IMF체제에서 20-40%의 매출감소를 경험하

였지만 부유층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몇몇 백화점은 매출의 감소를 겪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9년 0.32를 기록해 1979년 이래 2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나아졌지만 계층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donga.com, 2000, 3, 3). 이와 같이 소득의 격차로 인해 소매점들의 세력 판도가 재편되고 있어, 최고급품을 취급하는 상점들과 저가상품을 취급하는 할인점은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소매점은 매출의 감소를 겪고 있다.

최근에 들어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둔화추세는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느끼는 생활형편의 격차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2001, 2, 18). 즉, 소득계층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고소득층이 4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저소득층은 30.0%로 떨어져 격차가 18.7포인트로 전분기(13.1)보다 확대되었으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4분기보다 더 큰 수준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지출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지출 가운데 의류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상류층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류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의복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며 의복을 통해 과시하려는 성향이 높고 유행하는 옷을 남보다 먼저 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호, 1977; 김미영과 이은영, 1983; 유정열, 1988; 홍금희, 1988). 또한 Ryan(1966)과 이금실(1999)의 연구에서는 상류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계 소득이 증가되었을 때 어떤 비목은 소비를 줄이고 어떤 비목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소비지출 비목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가계를 소비주체로 했을 때 선호도와 함께 고려해야할 사항이 필요도이다. 어느 비목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소비양식의 골격을 결정하게 되며 선호도와 필요도에 대한 고려를 통한 소비지출의 비목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졌다(Engel, 1895; Katona, 1975; Douglas, 1980). 위의 학자들의 이론을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지

출행동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요인으로 기호와 선호의 대리변수는 연령, 가족원수, 교육수준, 직업, 취업자수, 주거보유상태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소비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인 영향요인을 포함하거나 거시경제지표들을 포함하여 소비결정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세분화 하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소비함수 모형, 선택적 소비지출, 인플레이션 효과, 소비자의 주관적인 경기전망, 균등화지수, 라이프사이클의 영향, 그리고 지출항목별 소비결정함수등이 있다(조유현, 1997;정은주, 이기춘, 1996; 김진욱, 1996;김정연, 1980;류향기 1991;김기욱, 이승신; 1990; 배미경,박광희, 1997).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때, 가계 소비지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로는 연령, 가족원수, 소득수준, 그리고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각계층별 소비성향 및 평균지출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배미경, 1998; Linda & Thomas, 1996),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지출항목별 평균 지출을 비교한 결과 15개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문화 및 레저비, 교제비, 공공교통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항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에서 구성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장 양극화에 따라 VIP 고객에 대한 관심이 차츰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미루어 볼 때 고소득층에 대한 면밀한 소비지출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

대우경제연구소 Korean Household Panel Study의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고소득층은 기존 연구의 정의를 준으로 소득 상위 25%로 정하여(배미경, 1998) 이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분석한다. 경기변동에 따르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대 소비지출 구성비율의 변화를 1997와 1998년을 비교분석하여 소비패턴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고소득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소비지출 항목별

평균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두 해의 소비지출 및 구성비에 대한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지출항목별 구성비는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로서 산정하였으며 각 지출항목에 독립변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액 및 구성비의 변화

<표 1>은 97년과 98년의 모든 직업군과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여 소득 4분위로 계층을 나누어 각각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97년에 비해서 98년에는 평균소득이 4분위의 소득계층마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97년말 외환위기가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전체소득의 평균이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실소득의 불명확한 보고에서 연유되어 지는 것으로 추측한다면 연구의 한계로 자영업자들의 소득보고체계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표 1> 97년과 98년의 소득 4분위 비교 (단위: 만원)

4분위 값	1997년 소득		1998년 소득	
	근로 소득자	전체	근로 소득자	전체
상위 25%	260	235	222	200
중앙값 50%	195	150	163	109
하위 25%	142	95	118	86
평균(표준편차)	211(110)	159(138)	181(103)	122(121)
표본수(단위:가구)	1363	2724	1082	2468

<표 2>는 고소득층과 그 외의 집단을 고소득층외로 나누어 1997년 소득 및 주요 소비지출 항목 6개의 평균 지출액과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t-test결과에 의하면 6개 지출항목에서 모두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성비의 경우 모든 지출항목에서 고소득층외의 집단이 구성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98년도 지출항목별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97년도와 일관되게 주요지출항목의 평균지출액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성비의 경우 외식비와 교양오락비를 제외하고 다른 지출항목은 고소득층 외집단이 고소득층 집단보다 구성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불황 시에 선택적 지출의 대표적 항목인 외식비와 교양오락비의 경

<표 2> 97년 소득 및 소비지출 평균과 구성비
(단위 : 만원)

	고소득층(상위 25%)		고소득층 외(75%)		t 값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	
소득	354.0 (107)	총지출 /251	161.7 (54.8)	총지출 /137	38.4*
식료품비	46.4 (54.3)	21.1	41.5 (92.1)	36.9	7.1*
주거비	14.4 (18.9)	6.2	9.1 (12.3)	6.8	11.6*
피복비	14.2 (13.9)	6.2	7.9 (6.7)	6.3	6.7*
교양 오락비	10.3 (15.2)	4.3	6.3 (12.3)	5.4	8.7*
외식비	10.2 (7.8)	4.6	7.1 (7.6)	5.4	13.0*
교육비	10.2 (7.8)	12.0	21.6 (29.4)	14.9	14.7*

* : p<0.05

<표 3> 98년 소득 및 소비지출 평균과 구성비
(단위 : 만원)

	고소득층(상위 25%)		고소득층 외(75%)		t 값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	평균 (표준편차)	구성비 (%)	
소득	310.5 (113)	총지출 : 305	137.3 (49.3)	총지출 : 137	52.4*
식료품비	40.7 (18.8)	18.4	29.7 (13.7)	28.1	8.6*
주거비	4.9 (7.4)	2.0	3.3 (6.6)	2.7	12.4*
피복비	9.8 (7.3)	4.2	5.8 (4.8)	4.6	4.8*
교양오 락비	6.3 (6.5)	2.7	3.5 (4.5)	2.6	16.9*
외식비	1.7 (8.5)	0.8	0.9 (6.1)	0.7	10.0*
교육비	27.1 (26.9)	11.5	17.5 (31.5)	12.6	11.2*

* : p<0.05

우 고소득층은 소득감소만큼 두 지출항목의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식비와 교양오락비의 소득탄력성은 다른 소득계층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4>는 <표 2>와 <표 3>을 기초로 하여 두 해 동안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평균 및 구성비를 요약하였다.

<표 4> 97년 대비 98년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평균 및 구성비의 비교

소비지출 항목	98년 고소득층 (상위 25%)		97년 고소득층 (상위 25%)	
	평균	구성비(%) /순위	평균	구성비(%) /순위
식료품비	40.7	18.4/5	46.4	21.1/1
주거비	4.9	2.0/3	14.4	6.2/3
피복비	9.8	4.2/4	14.2	6.2/4
교양오락비	6.3	2.7/2	10.3	4.3/6
외식비	1.7	0.8/1	10.2	4.6/5
교육비	27.1	11.5/6	28.9	12.0/2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98년도의 경기불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지출비의 경우도 적지 않은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요 6개 지출비목에서 구성비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외식비의 경우 가장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며 여전히 교육비는 적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구성비 감소의 순위를 볼 때, 외식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비, 식료품비,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2.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다음은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로 한다. 98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연령의 경우 40-50세가 표본의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30-40세가 전체표본의 27.3%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성별은 전체표본의 93.7%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지의 경우 서울이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순으로 대도시, 소도시, 군부지역으로 이어졌다. 가구주의 직업은 세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근로소득자는 전체표본의 47.2%를 차지하였고 자영업의 경우 41.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이 전체표본의 93.2%로 높은비중을 차지하였다.

독립변수중 비율변수로서 소득대비 소비비율, 소득, 자산, 부채, 주관적 경기전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기술한 바와 같다. <표 6>과 <표 7>에서는 각 지출항목에 독립변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표 7>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6개의 주요 지출비목별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시켜 회귀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6>는

<표 5> 98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영목 변수	구분	빈도(%)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기준변수)	14(3.4)
	30-40세	112(27.3)
	40-50세	145(35.3)
	50-60세	78(19.0)
	60세 이상	51(15.0)
가구주 성별	남	385(93.7)
	여(기준변수)	26(6.3)
거주지	서울	206(50.1)
	대도시	92(24.8)
	소도시	77(18.7)
	군부지역(기준변수)	39(6.4)
가구주 직업	근로소득	194(47.2)
	자영업	174(41.8)
	농업 및 임업, &기타 (기준변수)	43(11.0)
결혼여부	기혼	383(93.2)
	미혼	29(6.8)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소득대비 소비비율	1.42	0.76
소득	319.3	111.5
자산	2441.8	3410.1
부채	1175.4	2592.1
주관적 경기전망 1	2.21	0.76
주관적 경기전망 2	2.87	0.74

6개 지출항목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그리고 피복비의 회귀분석을 묶어놓았으며 <표 7>은 교양오락비, 외식비,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각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표 5>에 제시한 변수중 명목변수인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결혼여부를 포함시켰으며 소득대 소비비율, 소득, 자산 부채와 서열변수인 올해 주관적 경기전망에 대한 것과 내년도 주관적 경기전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각 지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해석 시 지출항목별로 특징적인 몇 개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1) 식료품비

식료품비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은 소비가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배미경, 1998)와 유사하며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필수재로서의 식품보다 건강과 관련된 질적인 차원을 고려한 식료품비의 지출비

중이 큰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대도시에 주거하는 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것은 물가가 반영된 결과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부채의 경우 식료품비 지출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회귀계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소득대 소비비율이 부적인 관계를 보여 과소비하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료품비 소비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많고 과소비율이 높은 가정일수록 식료품비와 같은 필수적 지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비

주거비의 경우 소득과 주관적 전망, 그리고 거주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액은 주택구입비는 포함되지 않고 주택수리비의 형태가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과 같은 유동성 자금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수리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비 지출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3) 피복비

피복비의 경우 소득대 소비비율, 소득, 그리고 성별에 따라 지출액의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의 순으로 피복비 지출액 차이가 나타난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 피복비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직업의 분류를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 및 임업과 기타로 분류한데서 그 원인을 들 수 있으면 직업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직업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소득층 가계 중 과소비율이 높을수록 피복비 지출이 적은 것은 소득 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가정의 경우 피복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항목의 지출증가로 인하여 지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필수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피복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4)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복비의 경우와 같이 소득대 소비비율, 그리고 소득으로 나타났다.

<표 6>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회귀분석

	식료품 지출액		주거비 지출액		피복비 지출액		
	회귀계수(b)	T값	회귀계수(b)	T값	회귀계수(b)	T값	
상수	10.65	0.89	-2.21	-0.33	-5.01	-0.98	
소득대 소비비율	-6.19	-4.53**	-1.13	-1.47	-2.08	-3.55**	
소득	0.05	4.95**	0.01	2.62**	0.02	5.00**	
자산	-0.00	-0.11	-0.00	-0.44	0.00	0.19	
부채	-0.00	-2.46*	-0.00	-1.28	-0.00	-1.49	
주관적 전망	-1.92	-1.48	-1.45	-1.98*	0.32	0.58	
	2.07	1.56	0.95	1.27	0.26	0.46	
성별(남1/여0)	5.34	1.10	5.32	1.94	4.77	2.29*	
연령	30-40세	11.58	2.15*	2.53	0.83	1.27	0.55
	40-50세	14.85	2.77**	1.80	0.59	3.80	1.66
	50-60세	8.51	1.53	-1.17	-0.37	3.45	1.45
	60세 이상	14.09	2.29*	-1.01	-0.29	2.01	0.76
거주지	서울	6.10	2.36*	-2.87	-1.97*	-0.74	-0.67
	대도시	11.12	3.53**	-1.75	-0.99	-0.87	-0.65
	소도시	1.43	0.44	-2.70	-1.47	-2.20	-1.58
직업	근로소득	0.85	0.20	3.43	1.44	0.83	0.46
	자영업	0.37	0.09	3.65	1.55	0.83	0.46
		R ² =0.1541, n=411		R ² = 0.0783, n= 411		R ² = 0.1284, n= 411	

*p<.05, **p<.01

<표 7> 교양오락비, 외식비, 교육비 회귀분석

	교양오락비 지출액		외식비 지출액		교육비 지출액		
	회귀계수(b)	T값	회귀계수(b)	T값	회귀계수(b)	T값	
상수	0.95	0.22	13.14	2.50*	-6.55	-0.32	
소득대 소비비율	-1.47	-3.02**	-0.72	-1.20	-11.13	-4.70**	
소득	0.01	3.40**	0.00	1.10	0.08	4.70**	
자산	0.00	1.85	0.00	0.24	0.00	0.31	
부채	-0.00	-0.23	-0.00	-0.88	0.00	1.90	
주관적 전망	0.41	0.88	-0.31	-0.53	-0.68	-0.30	
	0.41	0.85	1.05	1.80	1.05	0.46	
성별(남1/여0)	1.67	0.96	-0.76	-0.35	4.91	0.58	
연령	30-40세	-0.75	-0.39	-14.49	-6.10**	20.24	2.16*
	40-50세	0.43	0.23	-13.88	-5.86**	33.75	3.63**
	50-60세	-0.99	-0.5	-14.91	-6.06**	22.20	2.29*
	60세이상	-0.36	-0.16	-14.36	-5.27**	3.86	0.36
거주지	서울	-0.25	-0.26	-0.55	-0.48	5.79	1.29
	대도시	1.05	0.93	0.26	0.19	21.18	3.87**
	소도시	-0.34	-0.29	-0.79	-0.55	6.02	1.07
직업	근로소득	1.61	1.07	1.14	0.61	22.84	3.11**
	자영업	0.32	0.22	0.52	0.28	20.56	2.83**
		R ² = 0.0798, n= 411		R ² =0.1298, n= 411		R ² = 0.1195, n= 411	

*p<.05, **p<.01

피복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과소비율이 높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 감소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교양오락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식비

외식비의 경우 연령이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기준변수인 연령이 30대 미만인 가구에 비해서 연령이 높은 4개의 집단 모두 외식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배미경, 1998), 외식비 지출은 일반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6) 교육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교육비 부문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소득대 소비비율, 연령, 거주지와 직업 등에서 다양하게 영향요인이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과소비율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연령의 경우 50세까지는 기준변수인 30세 이하의 그룹에 비해서 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지출증가를 보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정도에서 자녀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할 때 타당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군부지역에 비해 대도시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98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생활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의 소비행태는 소비의 고급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여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일부 소득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고소득층의 소비패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시장은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기불황이라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소득층과 그 외 계층간의 소비지출 및 구성비의 차이를 조사하고, 고소득층의 소비지출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소비지출 항목 6개를 선정하여 97년과 98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각 년도별로 고소득층 및 고소득층 외 집단을 구분한 경우 6개의 지출항목별로 평균지출액의 차이를 보였다. 97년에 비해서 98년에는 평균소득이 4분위의 소득계층마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7년말 외환위기가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구성비의 경우 97년에 비해 98년에 고소득층 가구에 있어서 교양오락비와 외식비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기침체 따른 소득탄력성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외환위기전후로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주요 6개 지출비목에서 구성비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외식비의 경우에 가장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경우 적은 폭으로 감소하여,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에 대한 소비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6개 지출항목별로 영향변수를 살펴본 결과, 소득은 외식비를 제외한 5개 지출항목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식료품비, 외식비, 교육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대 소비비율인 과소비율은 식료품비, 피복비 교양오락비, 그리고 교육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부채와 자산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거주지는 상대적 가격에 민감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교육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은 피복비 지출에, 경기에 대한 주관적 전망은 주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에 부채와 자산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소비지출 행동에 대한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의 경우 교양오락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고소득층의 지출행동의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겠다.

경기변동 및 물가의 변화는 소득계층별 소득배분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계층별로 소득결정함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특히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업의 마케팅 관리자들에게 신속한 소비자욕구 파악에 근거하여 신제품 개발, 과학적인 마케팅전략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박성연·최신애, 2000).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다양한 욕구와 개성적인 생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IMF경제위기로 인해 소비생활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시대의 소비패턴은 최근까지도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생활을 패턴을 이해하는 과학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욕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와 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소득계층별 특성을 조사하였으나 향후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분석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면밀한 소비행동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유통, 금융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이슈로 등장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VIP고객층을 위한 PB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소득층 소비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각 전반에 걸친 기업마케팅의 핵심적 과제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소득층의 경우 구성비의 변화가 큰 지출항목에 대해서 기업체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전략이 기업의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전반적인 변화가 각 소득층의 소비지출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기업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데 고소득층의 소비문화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언점으로는 고소득층을 몇 개의 세분화된 계층으로 나누어 각 지출항목별 과소비집단 등 소비행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 및 정책차원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전반적인 변화가 소득층의 소비지출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소득 수준별로 상이한 소비문화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은행 및 보험사, 더 나아가 유사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 소비자경제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점으로는 향후 본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을 보다 세분화된 지출항목으로 분석하고, 고소득층을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로 계층화 하여 지출행동을 조사함과 동시에 소득의 종류나 자산구조 등을 면

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고소득층, 소비지출, 소비패턴, 사회계층, 의류마케팅, 마케팅 전략

참 고 문 헌

- 강이주(1998). 소비패턴의 사회적 형성. 소비자학연구, 9(2), 1-20.
- 김미영, 이은영(1983).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2), 21-35.
- 김정호(1977). 사회계층과 의복행태,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은정(2000, 5). IMF이후 소비자의 상품구매 패턴의 변화. 유통저널, pp. 40-46.
- 박성연·최신애(2000). 경제적 변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추세연구. 마케팅연구, 15(3), 1-18.
- 배미경(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분석. 소비자학연구, 9(4), 83-100.
- 부유층 외제차 구입급증. 부산일보. 2001, 4, 23.
- 송원호(1988).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에 관한 연구: GDP의 순환변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열(1986). 연령 및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착용동기 이론에 관한 연구 -대구시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실(1999).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의복의 상표와 품질 지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5), 85-99.
- 이상민, 최순화(2000, 5). 소비시장 고급화와 기업의 대응 (1). 유통저널, pp. 34-46.
- 이성우, 김재필(1998). IMF관리체제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그 의미. 소비자문제연구, 21권, pp. 32-54.
- 경제안테나 - 인구 1.6%, 총소비 25% 차지. 디지털타임스. 20001, 4, 10.
- 장혜원 임숙자(1996).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5), 769-782.
- 정영숙(2000). 소비지출패턴: 연구동향과 미래전망. 소비자학연구, 11(2), 85-102.
- 지혜경·이은영(1999).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3(5), 745-756.
- 통계청(1998, 9). 최근의 서울지역 경제동향, 서울지역통계사무소, pp. 48-61.
- 홍금희(1988).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만족도 결정변인 연구. 신라대학교 종합논문집, 제25집, pp. 305-320.
- donga.com : www.donga.com/fbin/searchview

- Douglas, E (1980) Income and Expenditure,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41-46.
- Engel, E (1895). "Die Lebenskosten Belgischer Arbeiter-Familien fruher and jetzt"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Bulletin*, 9, 1-74.
- Katona, G (1975). *Psychological Economics*, New York, NY-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Linda FA. Thomas D. Donley (1996). *The low-income consumer*, Sage Publications London, New Delhi.
- Ryan, M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2005. 04. 14 접수; 2005. 05. 16 채택)